[인싸의 공부법] 공모 양식

주 제	연상 학습법을 활용하여 암기 과목 학습하기

Ⅰ. 서론

필자는 2022학년도 간호학과에 편입하여 재학 중이다. 간호학과의 경우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고, 대부분의 과목이 암기력을 요구한다. 처음 편입했을 당시, 필자는 간호학과의 이러한 학습 방식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가 자주 사용했던 학습 방법을 도입하였다.

필자는 편입하기 전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였다. 언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어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많은 양의 어휘를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암기를 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영어 단어를 암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상 학습법, 해마 학습법을 활용하고 있다. 연상 학습법 또는 해마 학습법은 '기억할 대상을 연상을 통해 그림, 시각화하여 기억작용 중심 역할을 하는 뇌 속의 해마를 자극해 오랫동안, 그리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는 암기 방법'이다. 많은 양의 내용을 빠르게 암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시적이고, 유치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기는 하나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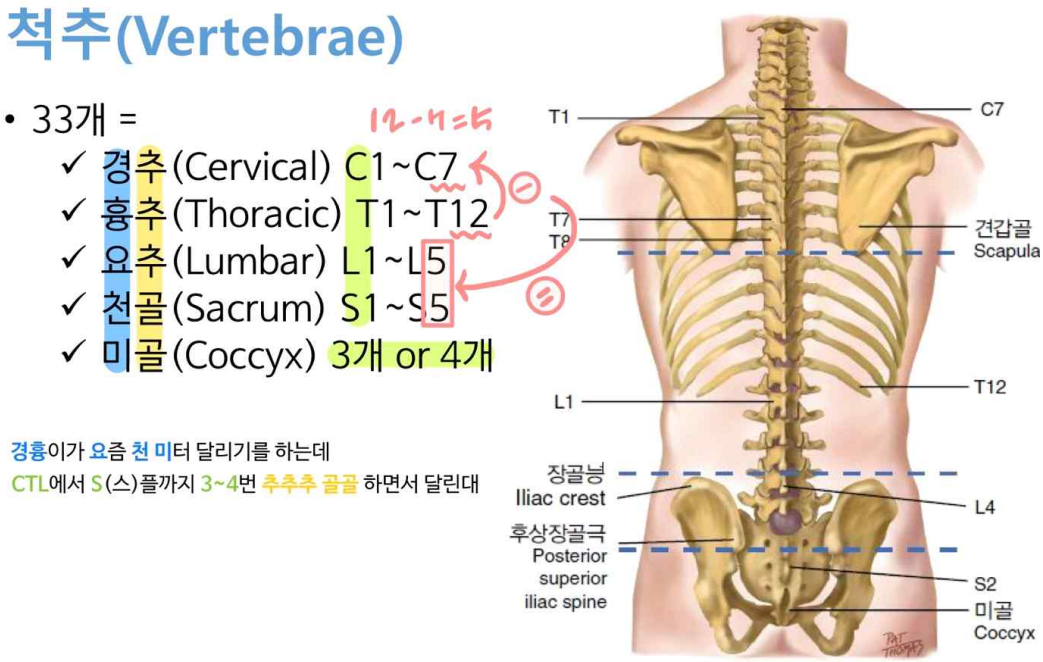
Ⅱ. 본론 : 학습과정

필자는 이번 연도 1학기, 간호학과 전공필수 과목 중 「건강사정」을 수강하였다. 「건강사정」의 경우, 면담과 신체 검진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력을 포괄적으로 사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통의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학년 때 병리학, 해부학, 생리학, 간호용어 등 기초적인 전공 지식을 학습하고 2학년 때부터 배운 지식을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한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본 학과에 편입하였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1학년, 2학년의 전공 과목을 동시에 수강해야 했다. 따라서 아무런 전공 지식이 없는 상태로 실습 과목을 수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암기해야할 수업 내용이나 의학용어는 많은데, 평소에 자주 접하는 내용이 아닌지라 암기를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고는 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연상학습법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암기해야 할 단어의 일부를 이용해 문장을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려 외우는 것이다.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다. 「건강사정」을 수강하며 근골격계 계통을 학습한 내용이다. 근골격계 계통의 경우 뼈의 이름이나 구성을 암기해야 하는데, 필자는 뼈의 이름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어 암기하였다.

「건강사정」 근골격계 계통 중 척추의 구조를 학습한 방법



「건강사정」 근골격계 계통 중 관절의 구성을 학습한 방법

주관절(elbow joint)
세 개의 뼈(**요**골, **상완**골, **척**골)로 구성

⇒ 너 **요상완(한) 척** 하면 **주(죽)**는다

슬관절(knee joint)
슬개골(patella), **경**골(tibia), **대**퇴골(femur)로 구성

⇒ **슬슬 경대** 가서 놀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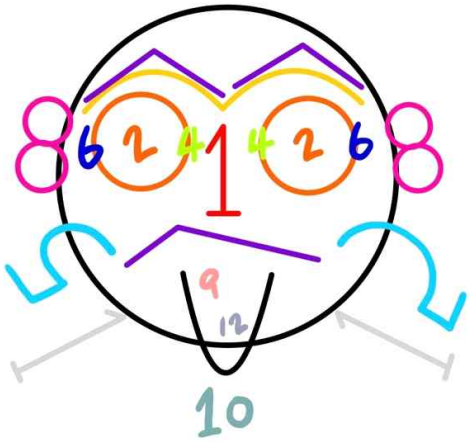
족관절
거골(**발**목뼈), **경**골, **비**골로 구성

⇒ **거**, **경비** 아저씨! 오늘 **족발** 하나 콜?

「건강사정」 신경계 계통 중 뇌신경을 학습할 때는 각 신경의 담당 기관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학습하였다. 예를 들어 제1뇌신경은 후신경이라 코를 대신하여 그렸고, 제8뇌신경은 청각신경이기 때문에 귀를 대신하여 그리는 식이다. 그림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이 얼굴의 형태가 완성된다.

「건강사정」 신경계통 중 제12뇌신경을 학습한 방법



제1뇌신경: 후신경
제2뇌신경: 시신경
제3, 4, 6뇌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제5뇌신경: 삼차신경
제7뇌신경: 안면신경
제8뇌신경: 청신경
제9, 10뇌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제11뇌신경: 부신경
제12뇌신경: 설하신경

이처럼 필자는 연상 학습법을 활용하여 「건강사정」 과목을 공부하였고 효과적으로 많은 양의 내용을 암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을 편입생 동기들과 공유하였고, 나중에는 서로 연상되는 문장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학습 내용을 점차 발전시켰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편입생 동기들과 대화할 때면 연상 문장을 농담처럼 자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학습 내용을 암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조금은 터무니없는 내용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점이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작용했던 것 같다.

본인이 학습할 내용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터무니없는 내용이어도 좋다. 그림이어도 좋고, 문장이어도 좋다. 학습 내용이 쉽게 연상되기만 한다면 뭐든 괜찮다는 것이다. 이것이 연상 학습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연상 학습법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인 「감염간호」 과목에서 연상 학습법을 활용한 내용이다.

「감염간호」 신종출현감염병을 학습한 방법

니파바이러스 뇌염(nipah viruencephalitis): 바이러스는 다양한 종의 **과일박쥐**(fruit bats)로부터 반복적으로 분리되었으며 이는 자연보균소인 것으로 보임

⇒ **니 파**인애플 어디서 샀노?
⇒ **파인애플 → 과일박쥐**

웨스트 **나**일 뇌염: **모기** 매개 플라비바이러스 (flavivirus)이고, 주로 **집 모기**에 의해 감염됨

⇒ **웨(왜) 나**는 **집**에서 자꾸 **모기**가 물리노?

라싸바이러스(lassa virus): 만성적으로 감염되어 **소변**과 침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서부아프리카의 일반적인 가정 주변 **설치**류인 다포유동물 쥐인 mastomys natalensis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축지방변성(enzootic)

⇒ **라(아)싸**, 집에 화장실 **설치(류)**해서 이제 **소변** 볼 수 있다!

Ⅲ. 결론

1. 학습 성과

암기 과목의 경우 대부분 연상 학습법을 활용해 공부하였고, 특히 예시로 들었던 「건강사정」 과목의 경우 성적으로 A를 받는 등 좋은 학습 성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전적대학에서는 전혀 다른 계열을 전공했었고, 간호학과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다시 한 번 연상 학습법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2. 향후 계획

본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필자는 이미 2학기에 수강 중인 과목에서도 연상 학습법을 활용하고 있다.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은 간호학과의 전공 과목 특성상 필자는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이 학습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필자와 비슷한 학습 어려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한다거나 암기 과목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도저히 학습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해 흥미가 부족한 동서대학교 학우가 있다면 연상 학습법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연상 학습법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긴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갖게 된다면 점차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내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